

## 韓·中·日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거울\*

이경미\*\*

### — 목 차 —

1. 들어가며
2. 여성과 거울간의 서사유형
  - 1) 여성이 바라보는 거울
  - 2) 여성이 비춰지는 거울
  - 3) 여성이 간직하는 거울
3. 나오며

### 국문초록

거울은 오랜 시간 축적된 한중일 고대 여성들의 문화적 산물(産物)이며, 동시에 문학상상력이 발휘된 예술의 결정체였다. 여성들은 이러한 거울을 바라봄으로 자신의 여성성을 발견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종교와 민간신앙에 기인한 거울의 주술적 능력을 통해서 미래를 점치기도 하였다. 한편 여성의 진실한 모습이 거울에 비춰짐으로 성찰과 반성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지만, 반대로 욕망이 투영됨으로써 비극의 발단이 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거울은 헌신과 사랑의 정표(情表)이자, 헤어진 연인들에게는 합일(Oneness)의 그날을 기약하는 신물(信物)이자 구원의 표징(表徵)으로까지 승화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고전 문학 속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거울과의 마주침은 세롭고 다양한 분열의 시작과 끝을 경험하는 체험의 장(場)이 되었다. 때로는 동반자로, 때로는 동맹자로 일생동안 여성을 성장, 변화시켜 나갔으며, 어느 순간 여성들은 시대를 반사하는 거울 그 자체가 되었던 것이다.

\* 이 논문은 2022년도 동서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서대학교 중국어학과 부교수

키워드: 여성(女性), 거울, 한중일(韓·中·日), 고전문학(古典文學), 비교문학(比較文學)

## 1. 들어가며

“여성은 지금까지 수 세기 동안 남성의 모습을 실제 크기의 두 배로 확대 반사하는 유쾌한 마력을 지닌 거울 노릇을 해왔습니다. 1)

거울은 기본적으로 사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거나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의미가 확장되어 자신을 비춰보는 수단으로서의 귀감(龜鑑)이나, 경계(警戒)와 교훈(教訓)을 가져다주는 도구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때로는 미래를 보여 주는 신비의 통로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여성에게 거울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줌으로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기도 하였지만, 추한 것마저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보여줌으로써 그걸 들여다보는 여성에게 고통과 절망감마저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성들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황홀경에 빠지거나 또는 탄식하는 등의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그치지 않았다. 여성들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체험마저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여성이 거울을 대하는 적극적인 태도의 산물이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또한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통해 자신을 반성,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때로는 사랑하는 이의 분신으로 소중히 간직하며 재회를 꿈꾸기도 하였다. 여성은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춰지며, 그리고 거울을 간직하며 변화, 성장한 것이다. 그러기에 거울은 여성 인생의 동반자이며, 특히 통제의 빔장이 느슨해지는 문학의 영역에서는 여성의 진정한 동맹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하였다. 자기에 대한 깊은 인식, 타인을 향한 참된 진실의 발견, 또 다른 세계로의 여행에 빠질 수 없는 통로로서의 거울은 억압적인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또 다른 여성 혁명의 도구가 되기도 하였다.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발

1)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 민음사, 2008.

견하던 여성들은 어느새 시대를 반사하는 거울 그 자체가 되었던 것이다. 버지니아 울프의 말대로 여성은 남성의 실재를 더 크게 보이도록 축소된 릴리펫(Lilliput)이었는데도 모른다.

이제 더 이상의 애정의 신물, 능력을 지닌 신이한 물건은 아니지만 오랜 역사 속 인류문화의 축적된 유산이며 문학적 상상력이 결합된 예술의 결정체인 거울은 학자들의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주로 단일 국가 문학 작품 속에서 초점을 맞추어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이 일반적이었다.<sup>2)</sup> 이로 인하여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韓·中·日 삼국 고전문학 속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나아가 작품 속에서 여성과 거울간의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한 논문 또한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는 여성이 바라보는 거울, 여성이 비춰지는 거울, 그리고 여성이 간직하는 거울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서 펼쳐지는 여성과 거울간의 서사유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삼국문학의 비교로 개별 작품의 심도 있는 분석으로는 다소 부족하지만, 고대 한중일 고전문학 속 여성연구의 주제와 범위의 확장이라는 차별성과 나아가 공식적, 통시적 관점에서 여성과 거울을 심도 있게 조망하고자 하는 시도에 작은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작품 전개에 있어서 여성의 거울이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던 한중일 고전문학 작품을 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삼국사기』,

2) 김선자, 「뒤집힌 銘文 - 거울 영상 이미지의 환상성에 관하여」, 『中國語文學論集』 19, 2002; 김지선, 「청동거울에서 유리거울로」, 『중국어문학지』 27, 2008; 유강하, 「唐代之 청동거울[銅鏡]에 대하여 : 文物과 《太平廣記》〈器玩〉을 통해 본 隋·唐代之 銅鏡」, 『중국소설논총』 28, 2008; 정영빈, 「中國小說 속에서의 銅鏡의 文學的 受容」,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4; 박진경, 『조선시대 동경(銅鏡)의 전개양상과 특징』, 『인문과학연구』 33, 2021; 김현옥, 「노(能) ‘이즈쓰(井筒)’의 ‘미즈가가미(水鏡)」, 『민족무용』 10, 2006; 瞿麗莎, 「明清小说中的鏡子意象研究」, 『武汉工程职业技术学院学报』 3期, 2019; 吳珂, 「簡述中國古典文學中的‘鏡’意象」, 『疆經濟與文化』 71, 2009; 曾甘霖, 「古典文學中的鏡意象研究」, 華中科技大學碩士學位論文, 2006; 張培華, 「『枕草子』における「唐鏡」考 - 「心ときめきするもの」章段を中心に-」, 『總研大文化科學研究』 6, 2010.

『사씨남정기』, 『최고운진』, 『춘향전』 등을, 중국의 경우에는 『섭은랑(聶隱娘)』, 『태평광기(太平廣記)』, 『경세통언(警世通言)』, 『요재지이(聊齋志異)』, 『홍루몽(紅樓夢)』 등을, 일본의 경우에는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마쿠라노소시(枕草子)』, 『사라시나닛키(更級日記)』, 『이소자키(いそざき)』, 『도카이도요쓰야카이당(東海道四谷怪談)』 등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여성과 거울간의 서사유형

### 1) 여성이 바라보는 거울

#### (1) 여성성(女性性)

“나른하게 일어나 고운 눈썹 그리고 찢고 단장하는 것도 더디기만 하네.  
거울 앞뒤로 꽃을 비추니 꽃과 얼굴 서로 빛나네.”<sup>3)</sup>

당나라 온정균(溫庭筠)의 「보살蠻(菩薩蠻)」은 중국 고전 시가 문학사에서 거울을 통하여 여성의 아름다움을 절묘하게 드러낸 수작(秀作)으로 손꼽힌다. 거울이 여성의 꽃 같은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고, 이로 인해 거울은 그 자체만으로도 여성성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거울 보는 여성의 모습은 고전문학 작품 속에서 여성성을 드러내는 장치 혹은 여성성의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생활용품이었던 거울을 아름다운 문학의 세계로 인도한 것은 역시 여성들이었다. 거울의 이미지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유와 상징 등으로 무궁무진하

3) “懶起畫娥眉，弄粧梳洗遲，照花前後鏡，花面交相映。”(溫庭筠, 『菩薩蠻』)

게 전개되었지만, 무엇보다도 거울은 여성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치였다.<sup>4)</sup>

중국 남북조시대 악부시(樂府詩)인 『목란사(木蘭辭)』의 주인공 화목란(花木蘭)은 병든 아버지 대신 남장(男裝)으로 종군(從軍)하여, 12년 동안 전쟁터를 누비며 험악한 공을 세운다. 그러나 목란은 천자가 하사하는 높은 벼슬도 마다하고 고향집으로 돌아가기를 청하고는, ‘옛 치마 입고, 창 앞에서 곱게 머리 빗고, 거울 보면서 화장하는’<sup>5)</sup>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 목란은 거울을 마주함으로 전쟁터를 누비며 활약했던 자신의 남성성을 지우고자 하였다. 비록 목란의 남장과 전쟁참여행위가 당시 가부장사회에 대한 도전과 이탈행위로도 볼 수 있지만, 그 동기가 가부장사회의 으뜸가는 덕목인 ‘효’의 실천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그 목적을 완성한 후에는 다시 가부장 사회가 원하는 여성으로 복귀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랑받고 칭송받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목란이 다시 거울을 마주하는 행위는 여성성의 회복, 가부장 사회가 원하는 여성으로의 복귀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처럼 여성이 거울을 바라본다는 것만으로도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아름다움을 간직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일본 고전문학의 백미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에 등장하는 스에쓰무하나(未摘花)는 일본고전문학사상 최고의 추녀(醜女)로 일컬어지고 있다. ‘칠현금에 조예를 지닌 가난한 황족의 딸’이라는 잠깐의 호기심에서 겐지는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고, 다음날 아침 그녀의 집에서 낡은 거울, 중국풍의 빗등의 화장도구를 보게 된다. 겐지는 비록 외모는 아름답지는 않지만 여성으로서 단장할 줄 아는 그녀를 보고는 ‘풍취가 있고 보기 좋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겐지는 그녀를 곧 잊어버리고, 하인들도 모두 떠나 버리고 아무에게도 후견 받지 못하는 가난 속에서 스에쓰무하나는 홀로 저택을 지키며 그를 기다린다. 비록 낡은 구식 거울이지만 스에쓰무하나는 거울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겐지가 자신을 기억하고 다시 찾

4) 曾甘霖, 『古典文学中的镜意象研究』, 华中科技大学硕士学位论文, 2006. p.4

5) “脫我戰時袍, 著我舊時裳, 當窓理雲鬢, 對鏡帖花黃.” (『木蘭詩』)

아 줄 거라 굳게 믿고 기다린다. 결국 그녀가 간직한 여성성의 향기는 겐지로 하여금 다시 찾아오게 만들고, 겐지가 축조한 지상의 낙원으로 불리는 로쿠조인(六條院)에서 그의 후견을 받으면서 여생을 보내게 된다.

한편 이와 반대로 여성이 거울을 팔아 버림으로 여성성의 상실 혹은 여성성의 포기로 간주되어 그 결과가 아름답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여성이 남편 뒷바라지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거울까지 팔지만 결국 남편에게 배신당하는 이야기다. 에도시대의 작자미상의 오토기조시(御伽草子) 『이소자키(いそぎき)』<sup>6)</sup>에서 본처는 소송 문제로 상경한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거울까지 팔아 남편의 옷가지를 마련해 올려 보내며’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지만, 남편은 성공 후 첩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온다. 이에 화가 난 본처는 ‘두 개의 빨과 찢어진 입’의 흉측한 가면을 쓰고 첩에게 잠시 첩을 주려고 한다. 그러나 늙고 추해진 자신과 비교되는 젊고 아름다운 첩의 모습을 보고는 슬픔과 자괴감은 분노로 바뀌게 되고, 의도치 않게 첩을 폭행하여 죽이고 만다. 그리고 그 흉측한 탈은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본처의 얼굴이 되어 버리고 만다. 이에 본처는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라지고 만다.<sup>7)</sup>

스에쓰무하나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거울을 팔지 않은 것은 여성성을 간직하고자 하는 노력인데 반하여 본처가 거울을 팔았다는 것은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 여성성마저 포기했다는 의미이다. 비록 그 동기가 남편의 성공을 위한 것이었지만, 여성성의 포기, 상실에 이어 가부장사회가 금기한 질투의 감정마저 숨김없이 발산함으로 내면의 부덕(婦德)마저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결과로 추한 모습으로 남편과 가부장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는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위의 작품들은 거울이 단순한 도구가 아닌 여성성,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sup>8)</sup>

6) 『室町時代物語大成』, 東京:角川書店, 1983.

7) 이용미, 「설화 및 물어에 나타난 변형, 변신의 양상」, 『일본연구』 23, 2005. p.213.

8) 일본고전독해 편, 『의식주로 읽는 일본문화』, 제이앤씨, 2018. p.121

## (2) 신이성(神異性)

“백번이나 달궜다는 거울, 거푸집도 예사롭지 않았고, 만든 날짜, 장소 모두 신령스러웠다네.”<sup>9)</sup>

고대인에게 있어 거울은 사악한 것을 피하고, 귀신을 복종시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예언 능력이 있는 물건으로 받아들여져, 예로부터 주술적 능력을 상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부장품(副葬品)으로도 많이 사용되었고,<sup>10)</sup> 한편 도교의 제례의식이나 점복(占卜)의식에도 거울은 필수적인 도구였다. 위진 남북조 시대 갈홍(葛洪)의 포박자(抱朴子)에는 동경(銅鏡)을 이용하여 점을 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깨끗한 거울 9촌 이상 되는 것으로 스스로를 비추며 사념에 잠긴다. 칠월칠석날에는 신선이 나타나는데, 나타난 모습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한 번 보인 후에는 마음 속으로 천리 밖과 앞으로 올 일을 저절로 알게 된다.”<sup>11)</sup>

이러한 거울의 신비한 예지능력은 문학 작품에도 반영되어 여성들은 거울로 점을 치며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하였다.

중국 고전문언소설의 집대성작인 청초 포송령(蒲松齡)의 『요재지이(聊齋志異)·경청(鏡聽)』 편에는 여성이 거울로 점을 치는 내용이 등장한다. 내용은 어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일찍부터 명성이 자자해서 부모는 늘 그에게만 관심을 쏟았다. 또 형을 편애하는 까닭에 큰 며느리도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9) “百鍊鏡，鎔範非常規，日辰處所靈且祇。”(白居易, 『百鍊鏡』)

10) 『西京雜記』 권6 「廣川王發古墓」에는 廣川王이 魏 哀王의 무덤을 파헤쳤더니 “그밖에 기이한 물건은 없었고 단지 쇠거울 수백 개만 있었다.(無餘異物，但有鐵鏡數百枚)”라는 기록이 있다.

11) “用明鏡九寸以上自照，有所思存，七日七夕則見神仙，或男或女，或老或少，一示之後，心中自知千里之外，方來之事也。”(『抱朴子』卷15 「雜應」)

동생인 둘째 부부는 미움을 받는 처지가 되어, 둘째 며느리는 남편에게 늘 불만을 토로한다. 어느 해 향시(鄕試)가 치러질 즈음 둘째 며느리는 설달그믐날 밤에 거울 점을 치고, 이후 동생은 향시에 합격하여 크게 성공하게 된다. 거울 점에서 알려 준 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거울로 점을 보는 ‘경청(鏡聽)’이 일반 여성들에게까지 애용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sup>12)</sup> 이러한 거울의 신비한 예지능력은 한국 고전문학에서도 발견된다.

조선 후기 『춘향전』에서 춘향은 신임부사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하고 하옥되어, 목에 칼을 찬 채로 죽을 날만 기다린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화장대의 거울이 깨어지고 꽃이 떨어지는’ 불길한 꿈마저 꾀다.

“화장하던 거울이 깨져 보이고 창 앞에 앵두꽃이 떨어져 보이고 문 위에 허수아비 달려 뵈고 태산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말라보이니 나 죽을 꿈 아니오?”<sup>13)</sup>

춘향은 흉몽(凶夢)이라 생각하여 꿈 해몽을 위해 봉사를 부른다. 그러나 봉사는 “그 꿈 매우 좋다. 열매가 열려야 꽃이 떨어지고 거울이 깨어질 때 소리가 없을쏜가. 꽃이 떨어지니 열매가 달릴 것이요, 거울이 깨어지니 어찌 소식이 없으랴.”라며 장차 춘향이 쌍가마 탈 길몽으로 해석하며 춘향을 위로한다. 거울이 깨지는 꿈은 극적 반전의 계기가 되고, 결국 해몽대로 춘향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

이러한 거울의 신비로운 예지능력은 일본 고전 수필의 최고봉인 세이쇼나곤(清少納言)의 『마쿠라노소시(枕草子)』 제 26단 ‘にくきもの(여성의 가슴 두근거리는 일들)’에서도 보여 진다.

“... 고급 향을 태우며 혼자 누워 있는 것. 박래품 거울이 조금 어두워진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 약속한 남자를 기다리는 밤은 빗소리나 바람 소리에도 문득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sup>14)</sup>

12) 瞿丽莎, 「明清小说中的镜子意象研」, 『武汉工程职业技术学院学报』 3期, 2019, p.41

13) 김진영 외, 『춘향전 전집』 1, 박이정, 1997, p.381.

14) “よき薫き物たきて、一人臥(ふ)したる。唐鏡の少し暗き見たる。… 待つ人などのある



여성이 영혼을 비춘다는 거울에 약간의 변화라도 생기면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 반 걱정 반이 되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고대 한중일 삼국 모두 거울의 영험함과 예지능력을 믿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sup>15)16)</sup>

거울은 이러한 예지능력 외에도 귀신을 밝혀내고, 쫓아내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서 도교의 제례, 기도의식인 재초(齋醮)의식에서 거울은 빠질 수 없는 도구였다.

“등을 밝게 하여 천년귀(千年鬼)를 비춰내고, 고경(古鏡)으로는 만년귀(萬年鬼)를 밝혀낸다. … 업경(業鏡)(저승길 입구에 있다는, 중생의 선악을 비추어 본다는 거울)으로 귀신을 밝혀내 항복하게 하고, 명등(明燈)으로 악마를 비춰 놀라게 한다. … 이러한 신등(神燈)과 신경(神鏡)으로 귀신은 두려워하고 놀라게 된다.”<sup>17)</sup>

이러한 거울의 예지력, 사악한 기운을 쫓아내는 능력 등으로 인해 문학작품 속에서는 거울을 가는 사람마저도 비범한 인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고전소설의 여주인공들, 특히 재색을 겸한 여성들의 배우자가 되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다.

당전기(唐傳奇) 『섭은랑(聶隱娘)』은 어릴 때 여도사에게 납치된 섭은랑이 초인적인 무예를 전수받고는 신출귀몰한 여협(女俠)이 되어 탐관오리들을 처치하는 멋진 활약상을 그린 작품이다. 섭은랑은 뛰어난 무예 실력뿐 아니라

夜、雨の音、風の吹きゆるがすも、ふと驚かる。”(『枕草子』 第26段)

15) 중국 『태평광기』 권230 「蘇威」에서도 거울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견하고 스스로 어두워짐으로 위기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일식과 월식 때 거울도 해와 달과 함께 스스로 어두워짐으로 소무 집안의 불행을 예언하고 있었다. 이로써 거울이 해와 달의 분신으로 우주의 질서를 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6) 張培華, 「『枕草子』における「唐鏡」考—「心ときめきするもの」章段を中心に—, 『総研大文化科学研究』 6, 2010, p.29.

17) “明燈照出千年鬼, 古鏡照出萬年鬼, … 業鏡光明神鬼伏, 明燈晃耀邪魔驚, … 神燈神鏡, 鬼懼神驚.” (第50冊, 道法會元 卷 167, 『白雲霧篆』, 臺北新文豐出版公司, 1997)

자신의 배우자 선택에서도 상당히 독특함을 보이고 있었다. 어느 날 자신의 집 앞에서 거울을 가는 소년을 보고는 그를 배우자로 지목, 선택한다.

“하루는 문득 거울을 가는 소년이 대문에 이르니 은량은 기쁜 듯이 말했다. ‘이 사람이 바로 나의 남편감입니다.’ 부친은 감히 딸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 그와 혼인시켜 주었다.”<sup>18)</sup>

섭은량은 전통적 결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결혼을 감행하지만, 그녀의 부모가 감히 딸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어쩌면 이미 딸의 능력을 알고 배우자의 선택에서도 딸의 뜻을 존중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결국 거울을 가는 소년과 결혼한 섭은량은 이전보다 더 놀라운 능력으로 다른 여성 자객의 암살 계획까지 미리 막음으로 절도사의 신임을 얻게 된다. 작가는 섭은량처럼 비범한 여인에게 거울은 도술을 위한 필수 도구였을 것이고, 이러한 거울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적합한 배우자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처럼 거울의 신이한 능력은 문학작품 속에 반영되어 신출귀몰한 여협(女俠)의 활약상에 신비로운 환상성마저 더해 주고 있었다.<sup>19)</sup>

조선 후기 작가미상의 『최고운전(崔孤雲傳)』에서도 거울을 가는 비범한 인물이 등장한다. 내용은 신라시대의 실존 인물인 고운 최치원이 젊었을 적 당나라에서 유학하던 시절 중형무진 활약하는 이야기다. 최고운은 승상 나업의 딸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을 거울을 고치는 장인(匠人)이라고 소개하며 그녀에게 접근한다. 그리고 일부러 그녀의 거울을 깨고는, 스스로 ‘파경노(破鏡奴)’라 칭하며 자신이 깬 거울 값 대신 승상의 집에 노비로 들어간다. 그리고 나승상이 위기에 처해 그녀의 딸이 슬퍼할 때 자신이 도와 줄 것을 약속한다.

18) “忽值磨鏡少年及門，女曰：“此人可與我爲夫。白父，父不敢不從，遂嫁之。”(『太平廣記·卷第一百九十四·聶隱娘』，(김중균(편역), 『중국 전기 소설선』, 박이정, 2005, p.310.)

19) 정재서,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 푸른숲, 2000. p.232.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이 그대로 하여금 반드시 근심이 없도록 할 것  
입니다. 바라건대 근심하지 말고 속히 이 꽃을 받으십시오.”<sup>20)</sup>

그리고 자신의 기지로 위기에 처한 승상을 구해 주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그의 딸과 결혼한다. 후에 신라에 돌아와서는 신라왕이 하사하는 벼슬도 마다하고 백발의 아내를 소녀로 만들어 함께 가야산에 들어가 신선이 된다.

한중일 삼국 모두 세상의 비밀을 알아내어 두려움의 실체로부터 해방되고 자 하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들이 거울의 신비한 능력과 함께 결합되어, 고전문학의 세계를 끝없는 상상력과 아름다운 환상성으로 가득 채워 나갔다.<sup>21)</sup>

## 2) 여성이 비춰지는 거울

### (1) 진실(眞實)

“오직 거울 속에서는 그 참모습을 바꿀 수 없다.”<sup>22)</sup>

거울은 조금의 가림과 거짓도 없이, 모든 것을 보여주며,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漢)나라 유흠(劉歆)이 짓고 진(晉)나라 갈홍(葛洪)이 엮은 것으로 알려진 필기 저작 『서경잡기(西京雜記)』에는 신기한 거울 방경(方鏡)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함양궁에 방경(方鏡)이 있다. 사람이 다가와 정면으로 비추어보면 그상이 거꾸로 비친다.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비추면 오장육부가 가려진 곳 없이 환하게 보인다. 사람들이 속병에 걸렸을 때 가슴을 가리고 비춰봐도 병이 걸린 곳을 알 수 있다.”<sup>23)</sup>

20) “鏡裡影落之人，必使君無患矣。請勿憂而速受此花。” (최삼룡·이월령·이상구 역, 한국고전문학전집(2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p.443)

21) 김지선, 「청동거울에서 유리거울로」, 『중국어문학지』 27, 2008, p.154.

22) “唯不能於鏡中易其眞形。” (『抱朴子·登涉』)

‘오장육부가 환하게 보인다’, ‘가슴을 가리고 비취도 병이 걸린 곳을 알 수 있다’라는 기록에서 거울이 단순히 육체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본 모습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가려진 곳이 없이 환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울을 통해 때로는 진실을 감추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sup>24)</sup>

한편 위진남북조 시대 갈홍도 『포박자(抱朴子)·등섭(登涉)』에서 요괴나 도깨비는 사람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사람의 눈을 현혹하지만, “오직 거울 속에서는 그 참모습을 바꿀 수 없다.” 라고 믿었다. 이로 인하여 당시의 도교의 도사들은 술법을 행할 때 문 앞에 거울을 매달아 요괴를 비추었고, 몸에 신경(神鏡)을 걸어 사악한 기운을 쫓은 후 의식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청동거울은 세상의 참된 실상을 비추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요물들을 비추어 물리치는 힘을 가졌다고 믿어, 이를 조요경(照妖鏡)이라고 불렀고, 도교 수행자는 반드시 조요경을 소지해야 하였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밝고 빛남’으로 사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했던 신이적·주술적 거울에 대해 사람들이 경외심을 품고 있었다면, 마주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이 비취지기를 두려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요물, 귀신의 참모습을 비추는 거울의 이야기는 초기 지괴전기 소설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여,<sup>25)</sup> 당나라 전기(傳奇)에서 문학적 상상력과 환상성면에서 극치를 이루게 된다. 요물들의 본 모습을 밝혀서 퇴치하는 신기한 거울의 이야기인 왕도(王度)의 『고경기(古鏡記)』가

23) “咸陽宮有方鏡 … 人直來照之, 影則倒見;以手捫心而來, 則見腸胃五臟, 歷然無礙. 人有疾病在內, 則掩心而照之, 則知病之所在..” (『西經雜記』 卷3)

24) 김선자, 「뒤집힌 銘文 - 거울 영상 이미지의 환상성에 관하여」, 『中國語文學論集』 19, 2002. p.431.

25) 위진남북조의 『후수신기(搜神後記)』에는 진씨(陳氏)성을 가진 사람이 밭에서 콩을 심고 있다가, 신비한 두 미녀를 발견한다. 그녀들이 입고 있던 자색무늬의 푸른 치마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젖지 않았다. 마침 그 집 벽에는 동경(銅鏡)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 동경(銅鏡)에 두 여성은 두 마리의 사슴으로 비취지고, 이에 검을 가지고 사슴들을 잡아 포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손꼽힌다. 황제가 만든 거울로 미녀 앵무(鸚鵡)를 비추었더니, 앵무는 여우로 변하면서 그 정체를 드러내고 만다.

“보경(寶鏡)에 한 번 비춰지면 둔갑해 달아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오랫동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에 예전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끄럽사오니 원컨대 보경(寶鏡)을 상자에 넣어 봉하시고 저를 술에 만취하게 하여 생을 끝마치게 해주십시오.”<sup>26)</sup>

사실 앵무는 늙은 여우였고, 죽기 전 인간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었다. 이를 가엽게 여긴 왕도는 앵무를 위해 거울을 잠시 상자에 넣어 두고, 연회를 베풀어 준다. 그러자 앵무는 노래와 춤을 마친 후, 사람들을 향해 몇 차례 절을 하고는 늙은 여우로 변해 죽고 만다.

그리고 거울이 이물(異物)의 실체를 보여주는 전통은 중국 지괴전기 소설의 집대성작 청초 포송령의 『요재지이(聊齋志異)』의 환낭(宦娘)에까지 이어진다. 귀녀(鬼女) 환낭(宦娘)은 고금(古琴)의 명인 온여춘(溫如春)에게 연주기법을 전수 받고 싶어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온여춘의 방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어느 날 방 안에서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거문고 소리만 울리자 온여춘과 그의 아내 양공(良工)은 괴이하게 여긴다.

“양공(良工)의 친정집에는 오래된 거울이 있는데, 양공(良工)이 말하길 이 거울로 귀신을 비출 수 있다고 했다. 이튿날 그녀는 사람을 보내 거울을 가져오게 한 뒤 거문고 소리가 나길 기다렸다가 방안으로 뛰어들었다. 거울로 비추자 과연 한 여자가 방구석에서 몸을 숨기지 못해 당황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sup>27)</sup>

귀녀(鬼女) 환낭은 ‘귀신을 비추는 거울’로 인해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나지

26) “然天鏡一照，不可逃形，但久爲人形，羞復故體，願緘於匣，許盡醉而終。”(『古鏡記』)

27) “良工因言其家有古鏡，可鑒魑魅，翌日遣人取至，伺琴聲既作，握鏡遽入，照之，果有女子倉惶室隅，莫能復隱。”(김혜경, 『聊齋志異』, 민음사, 2002)

만, 환낭의 예술에 대한 열정에 감동 받은 온여춘은 그녀에게 거문고의 이치를 알려주고, 이에 환낭은 ‘인간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천상의 소리를 연주하는’ 경지에 오르고는 떠나간다.

이처럼 거울이 요물과 귀신의 실체를 보여줄 뿐 아니라, 저승에서 망자(亡者)들의 생전의 모습을 비춰주는 이야기도 있었다.

조선시대 「금강산 명경대(明鏡臺) 전설」에는 사람들이 죽은 후 자신의 전생을 비춰주는 염라대왕의 거울인 명경대(明鏡臺)가 등장한다. 명경대로 어느 비구니의 전생을 비추니 놀랍게도 비구니의 벗은 몸이 비춰진다. 그러나 진실은 눈보라 치는 추운 날씨 속에서 속살이 드러나는 낡은 옷을 입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지 여인에게 자신의 승복을 벗어주는 비구니의 모습이었다. 이에 염라대왕은 감동하여 비구니에게 비단옷을 하사하고 풍악을 울리며 극락으로 안내한다.<sup>28)</sup>

그리고 여성이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참 모습을 직시하며, 살아 온 인생을 반성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변화,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헤이안 시대의 스가와라노 타카스에의 딸 (菅原孝標女)의 『사라시나 닛키(更級日記)』는 여성이 소녀 시절부터 결혼 후 현실 속에서 그 꿈이 무너져 가는 과정, 그리고 결혼 후에 신앙생활에 몰두하는 모습까지를 담담하게 회고한 작품으로 일본 고대 여류 일기문학의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옛날부터,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모노가타리나 와카에만 열중하지 말고, 열심히 부처님께 손 모아 빌었다면 이런 믿기지 않는 일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 … 옛날, 부처님의 꿈을 꾸었을 때, 곧장 부처님을 참배하러 갔었으면,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지 않았을지 … 다른 꿈에 나왔던 거울 속의 보잘것없는 나만이 현실이 되다니…”<sup>29)</sup>

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한국구비문학대계』, 고려원, 2002.

29) “昔より、よしなき物がたり、うたのことをのみ心にしめで、よるひる思て、をこなひをせましかば、いとかるゆめの世をば見ずもやあらまし。はつせにて、まへのたび、いなりよりたまふしるしのすぎよとて、なげいでられしを、いでしまゝにいなりになうでたらまし かかば、かゝらずやあらまし … たゝかなしげなりと見しかゝみのかげのみたがはぬ、あはれに心うし。” (『更級日記』 32段)

젊었을 적 문학의 세계에 심취하여, 종교적 삶을 지향하지 못했던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거울에 비춰진 ‘보잘 것 없는 나’의 모습으로 반성하며 종교에 귀의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거울에 비춰진 참혹한 진실이 여성으로 하여금 반성과 성찰이 아닌 분노와 광기를 일으키고 결국 파국으로 향하는 작품도 있었다. 에도시대의 가부키극 중 하나이며, 일본 최고의 괴담(怪談)인 쓰루야 남보쿠(鶴屋南北)의 『도카이도 요쓰야 카이당(東海道四谷怪談)』에서 산후 조리로 몸이 허약해진 오이와(お岩)는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성과 혼인하고자 하는 남편 이에몬(伊右衛門)에 의해 독약을 먹고, 얼굴이 일그러지게 된다. 당황한 오이와는 몸을 떨면서 여성으로서, 아내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이를 검게 물들이고, 머리를 빗어 보며 자신의 추한 모습을 가리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머리카락은 한줌 씩 빠져서 더욱 추악한 용모가 된다. 오이와는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울에 비추어진 남편에게 배신당하여 버림받고, 독약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처참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는 절망한다.<sup>30)</sup>

오이와: “정말로 내 얼굴이 이토록 추녀가 되었다니 이게 나란 말인가?  
정말로 나의 얼굴이란 말인가?”<sup>31)</sup>

그녀의 원망과 분노의 감정은 광기로 폭발하고, 결국 무시무시한 유령이 되어 남편 이에몬과 새신부의 가족마저도 몰살시키는 잔인한 복수를 자행하게 된다.

모든 것이 비춰지는 거울, 심지어 보고 싶지 않은 모습조차 가감 없이 비춰진 결과는 여성의 반성과 성찰이라는 긍정적인 결말도 가져왔지만, 때로는 더

30) 横山泰子, 「フランケンシュタインとお岩、そしてその子たち」, 『法政大学小金井論集』 5, 2008, p.142-143.

31) お岩: “コリャ是、ほんまにわしが面テか。此様に悪女の顔に何でマア。コリャ、わしかいの、わしがほんまに、かほかいのふ。” (鶴屋南北 著・河竹繁俊 校正, 『東海道四谷怪談』, 岩波書店, 2015, p.131)

욱 참혹하고 잔인한 비극적 결말을 가져 오기도 하였다. 유교적 윤리가 비교적 느슨하고, 교리와 도덕성의 강조보다는 인간의 본연의 감정에 충실했던 일본 문학, 특히 일본 괴담소설에서 자주 발견되는 현상이었다.

## (2) 욕망

‘거울은 악마의 진짜 영덩이’<sup>32)</sup>

고대 서양에서 거울은 여자들의 진도된 영혼이며, 또한 마르지 않는 허영의 샘으로 여겨졌다. 여자에게 거울은 허영과 쾌락과 죄악의 통로로 여겨졌고, 이로 인해 중세에서는 ‘거울은 악마의 진짜 영덩이’라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였다.<sup>33)</sup> 이러한 거울에 욕망이 중첩된 이미지는 더욱 확대되어 남자를 유혹하는 관능적인 여자가 살고 있다는 상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음유시인들은 인어가 뱃사공의 영혼을 유혹하기 위해 바위에 앉아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빗는다고 노래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중세에는 긴 머리, 빗, 거울을 창녀의 전유물로 여겼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는 인어는 매춘부처럼 음탕한 여자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조루리(淨淨瑠璃)·가부키(歌舞伎)의 대가 지카마쓰 몬자에몬(近松門左衛門)의 『호리카와 나미노쓰즈미(堀川波鼓)』에서는 무사의 아내 타네(たね)의 간통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참근 교대(參勤交代)<sup>34)</sup>로 에도로 간 남편을 그리워하다가 술까지 좋아하게 된 그녀를 작품 속에서는 ‘거울을 마주하며 머리를 빗는 모습은 남자를 그리워하는 요염한 분위기가 있다’ 라고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거울은 남편의 장기 부재로 인한 외로움에 지친 타네의 내면의 욕망을 비춰주고 있었다.

32) 중세 서양 속담

33) 이성희, 『거울, 그림자, 꿈』, 인타임, 2021. p.40.

34) 에도 막부의 제도로 각 번의 다이묘를 정기적으로 에도를 오고 가게 함으로써 각 번에 재정적 부담을 가하고, 불모로 잡아두어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구축하였다.



이처럼 거울에 비춰진 여성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허무한 욕망을 보여주는 작품이 있다. 중국 고전문학의 걸작 『홍루몽(紅樓夢)』에 등장하는 왕희봉(王熙鳳)은 왕부인의 질녀, 가씨 집안의 며느리, 가련(賈璉)의 부인으로 가씨 집안의 실세 중 실세였다. 아름다운 외모와 달리 ‘봉저(鳳姐)’라고 불리며 ‘매운 고추(鳳辣子)’란 별명으로 남자를 손안에 휘어잡고 마음대로 희롱하며, ‘알패’라고 불릴 정도로 보통 남자들은 당해 내지도 못하는 여장부였다.<sup>35)</sup> 제 12회 「왕희봉은 치정놀음에 무서운 계략 꾸미고 가천상은 풍월보감의 정면을 비추었다네(王熙鳳毒設相思局, 賈天祥正照風月鑑)」에서 그러한 그녀에게 가서(賈瑞)가 연모의 마음을 품고 상사병에 걸려 드러눕게 된다. 한 절름발이 도사가 와서 풍월보감(風月寶鑑)이란 거울을 주면서 사흘 동안만 거울의 뒷면에 비춰보고 있으면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라고 한다. 거울 뒷면의 섬뜩한 해골이 비치는 모습에 놀란 가서는 얼른 거울을 돌려 쳐다보아서는 안 될 앞면을 보고 만다. 앞면 거울 속에서는 그토록 연모하던 왕희봉이 미소를 지으며 가서를 향해 손짓하고 있는 모습이 비춰진다. 이에 가서는 얼른 거울 속으로 들어가 왕희봉과 운우지정을 나눈다. 이러기를 몇 차례나 거듭하다가 가서는 결국 죽게 된다. 가서의 금지된 욕망이 거울 속의 왕희봉의 유혹적인 모습으로 투영되고, 그 뜨거운 욕망의 대가에는 차가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풍월보감은 아름다운 여인과 해골을 앞 뒤 동시에 비춰 보임으로 경계와 성찰, 풍자의 정신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설정된 것이다. 아름다운 여인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고, 흉측한 해골의 모습으로 인생의 본질인 죽음을 상징한 것이다.<sup>36)</sup>

한편 고여 있는 물은 원초적인 거울이며, 가장 오래되고 신비로운 거울이었다.<sup>37)</sup> 그리스 신화 속의 나르시스는 물에 비춰진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매혹되어 애태우다가 죽고 만다. 이처럼 물 위로 여성의 욕망이 비춰지고 비

35) 유희인, 「홍루몽의 여성형상」,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68.

36) 俞曉紅, 「紅樓說鏡」, 『紅樓夢學刊』, 2004年 第3輯, p.98.

37) 이성희, 『거울, 그림자, 꿈』, 인타임, 2021. p.17.

극적 결말을 맺는 이야기가 있었다. 사랑하는 임을 기다리다가, 그리움은 욕망이 되고, 그 욕망으로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대로 결국 자신이 기다리는 남성이 되어버리고 마는 무로마치(室町)시대 제아미(世阿弥)의 『이즈쓰(井筒)』에는 인적 끊긴 폐허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여인’이라 칭하는 여인이 등장한다. 그리고 우물물을 가르며 자신의 오랜 기다림과 외로움을 토로한다. 그리고 이어서 우물물에 비춰진 모습은 여인이 아닌 관을 쓰고 도포를 걸친 남성의 모습이다. 여인은 오랜 외로움을 견디다가 결국 연인의 의복을 입고 스스로 기다리는 사람이 된 것이다. 물 위에 비쳐진 모습은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또 다른 자신이었다. 38)

### 3) 여성이 간직하는 거울

#### (1) 미덕(美德)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39)

구약 성경 속 여성들에게도 거울은 소중하고 값진 물건이었다. 고대 이집트 왕에게 진상하는 값진 보물 중에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청동거울은 귀한 물건임을 알 수 있다. 구약시대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들의 중요한 일이었다. 이를 위해 성전 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제사장의 물두멍을 만드는 데 자신들의 소중한 놋 거울을 바쳤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가꾸어 주는 귀하고 소중한 거울을 아낌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바친 것이었다. 즉 여성들이 바친 거울은 헌신과 희생의 의미였고,

38) 김충영, 「노(能)에 그려진 「기다리는 여인들」의 根」, 『일본학보』 108, 2016, p.216.

39) 구약성경 출애굽기 38장 8절

또한 여성들의 정신적인 아름다움이었다. 이는 이후 신약에서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깨뜨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행위로도 이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거울이 사람의 내적인 아름다움, 인품과 덕성(德性)을 상징하는 현상은 동양 문화권에서도 발견되고 있었다. 티끌 한 점 없는 맑은 거울과 정지된 물이라는 뜻의 ‘명경지수(明鏡止水)’는 예로부터 동양에서 현자(賢者)의 맑고 밝은 마음을 상징하였다. 이로 인하여 역사, 문학 작품에서도 인재나 현자들을 맑은 거울로 비유하고 있었다. 일찍이 방통(龐統)의 재능을 알아보았고, 유비에게는 복룡(伏龍)과 봉추(鳳雛)를 추천한 사마휘(司馬徽)를 세상 사람들은 ‘수경(水鏡)선생’이라 불렀고, 『세설신어(世說新語)』에서는 ‘명경(明鏡)’으로 현자를 비유하기도 하였다. 조선 시대 문헌에서도 인간의 마음(心)을 거울로 상징 및 비유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조선 중기 저명한 문신이었던 신흠(申欽)은 ‘자신을 성찰해 내면의 마음을 거울처럼 밝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조선의 유교적 사회는 거울로 마음 상태와 학문적인 수양을 비유하였다.<sup>40)</sup> 이러한 사상은 문학의 세계에도 반영되어 거울은 현숙한 여성의 미덕(美德)을 상징하며, 현숙한 여성들의 인생의 동반자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김만중의 『사씨남정기』에서 유현(劉炫)은 며느리가 될 사정옥(謝貞玉)의 명석함과 현숙함에 감동받고,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거울과 옥가락지 한 쌍을 선물로 준다.

“며느리가 거울처럼 밝고, 옥처럼 온화한 덕이 있기에 특별히 상으로 내리마.”<sup>41)</sup>

그녀가 받은 거울과 옥은 그녀의 인품과 덕(德)을 비유하고 있었다. 작품 속에서 거울과 옥처럼 한 점의 거짓도 없이 맑고 고상한 인격을 지닌 사씨는

40) 박진경, 『조선시대 동경(銅鏡)의 전개양상과 특징』, 『인문과학연구』 33, 2021. p.128

41) 김만중, 류준경 옮김, 『사씨남정기』, 문학동네, 2014, p.29

거짓과 욕망이 이글거리는 탐욕스러운 첩 교씨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며 대립한다. 결국 사씨는 교씨의 온갖 악행과 모함을 이겨내고 다시 남편의 사랑을 되찾지만, 교씨는 남편에 의해 죽음에 처해져 ‘까막까치의 밥이 되는’ 짐승 같은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만다.

## (2) 정표(情表)

“거울은 사람과 함께 갔는데,  
거울만 돌아오고 사람은 돌아오지 않네.  
항아의 그림자는 다시 만날 수 없고,  
헛되이 밝은 달빛만 머물러있네.”<sup>42)</sup>

송나라 역대 설화집인 『태평광기(太平廣記)』에는 서덕언(徐德言)과 그의 아내인 낙창공주(樂昌公主)의 슬픈 사랑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부부는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헤어지게 되자, 훗날을 기약하며 각각 거울 한쪽씩을 소중히 간직한다. 후에 부부는 이 거울로 다시 재회하게 되는 내용으로 고사성어 ‘파경중원(破鏡重圓)’의 주인공들이다. ‘깨진 거울이 다시 둥글게 된다’ 즉 이별한 부부가 다시 하나로 합쳐졌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거울이 부부간의, 연인과의 사랑의 정표(情表), 신물(信物)로 사용된 것은 고대 결혼 의식과도 깊은 연관이 있었다. 당나라 단성식(段成式)의 『유양잡조(酉陽雜俎)』에서 당시의 결혼 의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신부를 맞이하면, 신랑과 신부는 나란히 절을 하거나 함께 동경(銅鏡)의 손잡이를 묶었다.” 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동경(銅鏡)의 손잡이를 묶었다(結鏡紐)”는 것은 “결발하여 어른이 되다.(즉 혼인을 의미한다, 結髮)”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함께 거울의 손잡이를 묶거나, 혹은 함께 지님으로 한 몸인 부부, 부부간의 약속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sup>43)</sup> 이는 부부의 동심(同心)을

42) “鏡與人俱去，鏡歸人未歸。無復姮娥影，空留明月輝。”(徐德言，「破鏡詩」)

43) 馬之驢，『中國的婚俗』，臺灣：臺北經世書局，1985，p.111.

표현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부부가 함께 보경(寶鏡)에 절함으로 동경(銅鏡)의 신성(神聖)을 존중한 것이었다.<sup>44)</sup> 그리고 당시 거울들이 단단한 청동으로 제조되어, 여성들은 거울 뒷면에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문구를 새겨 넣어 자신들의 사랑도 동경처럼 오래 지속되기를 기원하였다.<sup>45)</sup>

위진남북조 이방(李昉) 등이 편찬한 『태평어람(太平御覽)』에는 이러한 사상을 반영한 신기한 거울이 등장한다. 어느 부부가 헤어지게 되자, 거울을 깨서 반씩 나눠 신물(信物)로 삼았다. 그러나 부인이 약속을 깨고 다른 이와 정을 통하게 되자, 거울은 까치로 변해 남편에게 날아가 버린다. 이러한 연유로 후대 사람들은 동경(銅鏡)을 만들 때, 그 뒷면에 까치의 문양을 그려 넣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처럼 연인이나 부부가 헤어져 있게 될 때 동경(銅鏡)을 반으로 나눠 신물(信物)로 간직하는 행위가 유행했을 뿐 아니라, 사후에는 나누었던 동경을 함께 묻는 풍습도 성행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문학에서 거울은 사랑의 정표(情表), 신물(信物)로 상징, 비유되곤 하였다.

당(唐)의 장문성(張文成)의 『유선굴(遊仙窟)』에서 임지로 가던 장생(張生)은 하룻밤 사랑을 나누는 최십랑(崔十娘)에게 청동거울을 선물로 주며 지금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기원하였다.

“만약에 어떤 이가 마음이 변했다 이르거든, 이것으로 그대는 속마음 비  
취보소서.”<sup>46)</sup>

거울을 받은 십랑도 자신의 신발과 부채를 장생에게 이별의 선물로 주며, 장생이 자신을 영원히 기억해 주길 당부한다. 이처럼 하룻밤의 사랑에도 사랑의 신물이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연인들이 헤어지면서 거울 등의 정표와 신물을 주고받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

명의 풍몽룡의 『경세통언(警世通言)』의 「범추아의 두 거울이 다시 만나다

44) 정영빈, 「中國小說 속에서의 銅鏡의 文學的 受容」,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4, p.12.

45) 蓬瑤, 「簡述《太平廣記》中的鏡子」, 『陝西社會主義學院學報』 2期, 2016. p.53.

46) “若道人心變, 從渠照膽看.” (『遊仙窟』)

(范鰈兒雙鏡重圓)」도 부부가 헤어졌다 동경(銅鏡)으로 인해 재회하는 내용이다. 희주(希周)는 반군(叛軍)에 속하게 되어 순가(順哥)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집안의 가보이자 결혼예물이었던 거울을 둘로 나눠 갖고는 훗날을 기약하였다. 이후 순가(順哥)는 재가하지 않고 희주(希周)를 기다린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두 사람은 동경(銅鏡)에 의해 재회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

통일신라 김부식의 『삼국사기』 권48 열전과 조선의 『삼강행실도』에 실려 있는 설씨녀(薛氏女) 이야기 속의 설씨녀와 가실도 거울로 재회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 설씨녀의 연로한 아버지가 국경을 지키는 일에 징발되자, 평소에 그녀를 흠모하던 마을 청년 가실이 역을 대신해 주겠다고 자청한다. 이에 두 사람은 역이 끝난 뒤 혼인하기로 약속하고, 거울을 절반씩 나누어 신표로 삼고 헤어진다. 그러나 6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가실을 기다리다 지친 설씨녀의 아버지는 설씨녀에게 다른 사람과 혼인을 재촉하지만 설씨녀는 약속을 어길 수 없다고 하며 반대한다. 후에 가실이 돌아와 깨진 거울을 내놓고 이윽고 두 사람은 혼인하게 된다.

한국 고전 소설의 백미인 작자미상 판소리 소설 『춘향전』에도 거울이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의 신표로 등장한다. 과거를 보러 서울로 떠나가는 이도령은 춘향에게 거울을 선물로 주며 변함없는 자신의 마음을 믿어 달라고 당부한다. 춘향은 거울을 소중히 받아 품에 넣고, 자신의 옥가락지 한 짝을 이도령에게 준다. 거울이 두 사람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약속이라면, 옥가락지는 영원한 결합을 의미하였다. 춘향이 이도령의 거울을 간직하고 옥가락지를 줌으로써 자신이 이도령의 반려임을 각인시키고자 한 것이다. 거울과 옥가락지는 앞 장에서 살펴 본 『사씨남정기』에 이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사씨 부인의 거울과 옥가락지가 그녀의 명석함과 덕성을 상징하였다면, 춘향전에서는 두 연인의 사랑의 신표와 결합의 의미였다. 이것은 한국 고전 문학 속에서 거울의 이미지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또한 지조와 절개를 뜻하는 맑은 옥가락지와 더불어 많은 사랑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 3. 나가며

라캉(Jacques Lacan)은 어린 아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와 동일시하면서 자아가 구성된다고 하는 거울단계(mirror stage)를 주장하였다. 거울단계는 주체의 구조가 상상계적 작용과 나르시시즘적 열광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았다. 거울단계에서 아이는 몸에 대한 실제 느낌과 통제력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지만 나르시시즘이 불러오는 완벽함을 경험하게 되는 분열(Spaltung)을 겪게 된다. 한중일 고전 문학 속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거울과의 마주침은 새롭고 다양한 분열의 시작과 끝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다. 화목란(花木蘭)이 오랜 기간 전쟁터를 누비다 홀연히 거울 앞에 섰을 때 이는 그녀가 경험한 낯선 남장(男裝)으로서의 자신과의 분열을 끝내는 계기가 되었고, 여염집 여인들은 거울로 점을 보는 '경청(鏡聽)'을 통해서 시간을 넘나드는 새로운 분열을 경험하게 되었다. 「금강산 명경대 전설」 속 엄라대왕의 거울은 비구니의 벗은 봄, 그 이면(裏面)의 진실을 보여주며 타인이 갖는 오해라는 인식의 분열을 끝내기도 하였고, 『도카이도요쓰야카이당(東海道四谷怪談)』에 등장하는 병든 오이와(お岩)는 거울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진면목에 직면하게 되면서 자신과의 분열을 끝내게 된다. 그리고 결국은 여성에게 거울은 헌신과 사랑의 정표(情表)이자, 구원의 표징(表徵)으로 묘사되었다. 억지로 쪼개면서 다시 만나 합일(Oneness)의 그날을 기약하는 신물(信物)로서의 거울은 그 순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신(神)의 영역에 바쳐진 신물(神物)이었던 것이다.

## 參考文獻

- 김만중, 류준경 옮김, 『사씨남정기』, 문학동네, 2014.
- 김선자, 「뒤집힌 銘文 - 거울 영상 이미지의 환상성에 관하여」, 『中國語文學論集』 19, 2002.
- 김종균 (편역), 『중국 전기 소설선』, 박이정, 2005.
- 김지선, 「청동거울에서 유리거울로」, 『중국어문학지』 27, 2008.
- 김충영, 「노(能)에 그려진 기다리는 여인들의恨」, 『일본학보』 108, 2016.
- 김혜경역, 『요제지이』, 민음사, 2002.
- 박진경, 『조선시대 동경(銅鏡)의 전개양상과 특징』, 『인문과학연구』 33, 2021.
- 오학균, 『열녀춘향수절가』, 한국학술정보, 2021.
- 유강하, 「唐代的 청동거울[銅鏡]에 대하여 : 文物과 《太平廣記》〈器玩〉을 통해 본 隋·唐代的 銅鏡」, 『중국소설논총』 28, 2008.
- 유필익, 「홍루몽의 여성형상」,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이방(李昉) 外 모음, 김장환 外 譯註, 『太平廣記』, 학고방, 2000.
- 이용미, 「설화 및 물어에 나타난 변형, 변신의 양상」, 『일본연구』 23, 2005.
- 일본고전독해 편, 『의식주로 읽는 일본문화』, 제이앤씨, 2018.
- 이성희, 『거울, 그림자, 꿈』, 인타임, 2021.
- 정영빈, 「中國小說 속에서의 銅鏡의 文學的 受容」,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4.
- 정재서,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 푸른숲, 200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한국구비문학대계』, 고려원, 2002.
- 葛洪 編, 『西京雜記』, 上海古籍出版社, 1999.
- 瞿丽莎, 「明清小说中的镜子意象研」, 『武汉工程职业技术学院学报』 3期, 2019.
- 段成式 撰, 『酉陽雜俎』, 上海古籍出版社, 2000.
- 馬之驩, 『中國的婚俗』, 臺北經世書局, 1985.
- 吴珂, 「简述中国古典文学中的‘镜’意象」, 『疆经济与文化』 71, 2009.



蓬瑶, 「简述《太平广记》中的镜子」, 『陕西社会主义学院学报』2期, 2016.

俞晓红, 「红楼说镜」, 『红楼梦学刊』3辑, 2004.

曾甘霖, 「古典文学中的镜意象研究」, 华中科技大学硕士学位论文, 2006.

張培華, 「『枕草子』における「唐鏡」考 — 「心ときめきするもの」章段を中心に」, 『総研大文化科学研究』6, 2010.

鶴屋南北 著・河竹繁俊 校正, 『東海道四谷怪談』, 岩波書店, 2015.

横山泰子, 「フランケンシュタインとお岩、そしてその子たち」, 『法政大学小金井論集』5, 2008.

## Abstract

### Woman and Mirror in Ancient East Asian Literature

Lee, Kyung Mi

This paper delves into various types of narratives about women and mirrors portrayed in the East Asian classical literature. A mirror was not only a cultural product with long history by women in the ancient East Asia but also an artistic prototype that demonstrated their literary imagination. By looking into mirrors, women in the East Asian classical literature activated their femininity and sometimes foretold their future with the mystical power of mirrors based on religions and indigenous beliefs. While they reflected on themselves as their true selves were reflected on the mirrors, their images with desires projected were the seeds of forthcoming tragedies. Moreover, these mirrors served as keepsakes for commitment and love, tokens that reminded separated couples of their reunion someday and symbols for salvation. As stated, for the women in the classical literature, the act of looking into a mirror was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beginnings and ends of countless separations. Mirrors, as partners and even allies, developed women into better beings and transformed them throughout their lives. At some point, women themselves resembled the mirrors as they also reflected the era they were living in.

**Key words** : Woman, Mirror, East Asia, Ancient Literature, Comparative Literature

투 고 일 : 2022. 7. 10. / 심 사 일 : 2022. 7. 15. ~ 2022. 8. 15. / 게재확정일 : 2022. 8. 20.
---